

컬러 데이트

공화당 부총재

김영자

“여성이 흔들리면

“ 직장내 폭력, 불평등
여성의 권리를 무시
갖가지 폐단과 모순을 바로
맹렬 여성, 박영숙과 김영자.
부총재가 되어, 18년만에
소를 진단하고 보다 바람직
진지한 얘기를 나눴다.



대우, 불합리한 가족법 등
하고 남성과 차별하고 있는
잡기 위해 한평생을 바쳐온
그 두 사람이 각각 야당의
다시 만나 여성문제의 현주
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 진행 박상용 기자 □ 사진 정태호 기자

평민당 부총재

박영숙

나라가 뒤틀립니다”

‘향토반세기’

대한민국의 산업계를 이끌어온 축적된 기술과
첨단과학기술로, 화강돌의 역사를 창조해가고 있습니다

1995



남편이 출세하면
당달아 아내도 출세한
것으로 착각하는 여성이
많습니다. 이는 여성 스스로
노예 신분에 안주하길
원하는 거나 다름없는
애석한 일입니다.
여성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려는 주체의식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여성문제 곧 남성문제

여성들의 권익보호와 여권신장을 위해 정치 일선에서 남성 못잖게 정열적인 활동을 펴고 있는 평민당 박영숙 부총재와 공화당 김영자 부총재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함께 했다.

현역의원과 전직의원(10대)이기도 한 두 사람의 만남은 박 부총재가 YWCA여성단체협의회에서 활동하고 김 부총재가 보사부 부녀아동국장으로 있던 60년대 말 이후 처음이었다. 18년만의 만남이라서인지 두 부총재는 마치 옛 친구를 만난듯 반가운 얼굴로 한동안 인사를 나눴다.

김영자: 아마 20년 가까이 됐죠? 너무 오래 지나 기억마저 희미하군요.

박영숙: 그러니까 제가 YWCA여성단체협의회 활동을 68년도에 그만뒀으니깐 그무렵쯤 해서 직접적인 관계가 끊어졌을 거예요. 김 부총재께서 유정회에 계실 땐데 길거리에 나서는 바람에 먼발치에서만 활동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김영자: 서울 인구가 1천만이라는 게 실감납니다. 박 부총재께서 이제

막중한 책무를 지녔는데 기대하는 바가 큼니다.

박영숙: 너무 부담주지 마세요. 이제 겨우 정계에 첫발을 내딛은 초년생인데요. 학생들 만나랴 구속자 가족 만나랴 여성모임에 뛰어다니랴 정말 정신이 없어요. 정치 선배이신 김 부총재께서 과거 경험을 좀 많이 나눠주셔야겠습니다(웃음)

김영자: 박 부총재께서 같은 여자의 입장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성문제 해결에 크게 힘써주셔야겠습니다.

박영숙: 여성문제는 한 개인이나 한 단체의 힘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여성 개개인 모두, 나아가 온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풀어나가야 할 성격의 문제입니다. 정치가들도 여성문제만은 초당적인 차원에서 다뤄야합니다. 특히 여성 본인들이 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 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자: 그래요. 지난 총선 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성 유권자가 전체의 반인데도 불구하고 지역구에서 여자 국회의원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박영숙: 우리 여성들의 의식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주위로부터 축하를 기분 좋게 받을 수 없는 것도 명색이 국회의원이자 뒤를 받쳐줄 실제적인 힘이 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전국구라도 직능별로 추천을 받아 결정된다면 상당한 힘을 갖고 활발한 활동을 펼 수 있을 텐데... 김 부총재께서 과거 원내 입법 활동 뿐만 아니라 행정부에서 실무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성문제에 대해선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거예요.

김영자: 직장내 폭력, 고용의 불평





등 대우, 불합리한 가족법 등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는 참 많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UN보고서에서 여성은 전체 일의 3분의 2를 하고서도 소득은 10분의 1, 소유는 1백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는 여성의 능력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여자나 남자나 얘기 넣는 일 빼고는 모두 공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남자도 밥을 할 수 있고 여자도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랜 세월동안 남자와 여자의 일을



“
여성에게 아무리
기회를 주더라도 정작
여성이 원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저희 당에서도
지난번에 당무위원 등을
여성단체에 추천해달라고
의뢰했는데 원하는
여성이 없었어요.
”

구분, 그 일면에 초점을 맞추어 강조해왔기 때문에 오늘날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된 거죠.

박영숙: 그러한 문제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측면과 관습적인 측면에서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최근 가장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고용에서의 남녀평등, 가족법 개정입니다. 이 중에서 고용문제는 지난 4월 1일에 관계법안이 통과되어 발효중인데, 이 법안은 법규정을 어겼을 때의 벌칙이 미약할 뿐더러 고용 당시의 차별문제는 거의 다뤄지지 않고 있어 보완할 점이 많다고 여겨집니다. 고용자가 법을 어겼을 경우 벌칙금이 2백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기업들이 그까짓 게 무시워 여성문제에 눈을 돌리겠습니까? 기대하기 힘든 일이지요. 다만 선언적인 측면에서 그칠 뿐입니다.

또 하나 가족법 개정은 사실 지금까지 정계에 뛰어든 입후보자들마다 이번만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큰소리를 쳤던 문제인데도 아직까지 걸만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 부총재께서 국회에 나설 때도 이 문제는 거론 됐었죠?

김영자: 물론이죠. 그렇지만 마지막 회기까지 밀려지다 결국 흐지부지



되고 말았죠.

박영숙: 지구를 떠받들고 있는 힘의 반이 여성이지만 가족법 개정을 줄기차게 반대하는 유림의 조직력이 그 힘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가족법이 총선을 몇 달 앞당겨 두고 거론돼 유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저희 평민당도 이번 13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달리 유보조항없이 반드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 매듭지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공화당은 어떻게 됩니까?

김영자: 저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보완 못지않게 여성 본인들의 의식 개혁도 뒤따라야 합니다. 일례로 남편이 출세하면 덩달아 아내도 출세한 것으로 착각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이는 여성 스스로 노예 신분에 안주하길 원하는 거나 다름없는 애석한 일이에요. 물론 남편이 잘되면 간접적으로 아내의 위치가 상승되지만 이는 스스로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그냥 남편의 테두리 속에 귀속된 부수적인 존재로 남을 뿐이에요. 여성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려는 주체 의식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남편의 위치가 올라가면 거기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개인의 노력을 더욱 기울여



아지요.

박영숙: 그게 바로 관습적인 폐단입니다. 여성의 참정(參政) 문제에 있어서도 여성에게 아무리 기회를 주더라도 정작 여성이 원하지 않거나,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거죠. 저희 당에서도 지난번에 당무위원이나 지도위원·보좌관 등을 여성 단체에서 추천해 달라고 의뢰했는데 원하는 여성이 없었어요.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여성들의 정치 참여 폭이 한층 넓어질텐데 여간 염려스럽지가 않아요.

김영자: 21세기가 되면 공동 참여 공동 책임 사회로 바뀌어 여성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폐단들이 비록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못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제도적 개선과 의식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당 차원에서도 원내 외의 구분없이 정치력을 발휘하여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박영숙: 여성들이 직장이나 가정 등 사회 곳곳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저희 정치인들이 일일이 알기에는 힘든 일입니다. 다만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올라오면 그것을

원내 활동을 통해 가장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도록 노력할 뿐이지요.

김영자: 요즘들어 구사대니 뭐니 해서 직장내 폭력이 난무하는데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김 부총재가 화제를 바꾸자 박 부총재가 기다렸다는 듯 말을 낚아채고 톤을 높인다)

박영숙: 직장 폭력 뿐만이 아닙니다. 권양사건과 같이 공권력에 의한 폭력, 가정내에서의 남편의 폭력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러한 비인간적 작태는 민주 사회에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합니다. 공권력은 어떤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고문의 형태로, 직장에서의 폭력은 반항 역제의 수단으로, 또 가정에서의 폭력은 아내를 속박하기 위해 빚어지는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 여성이 소위 정조라는 굴레를 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여성에게만 순결을 강요하고 남자에게 왜 관용해야하는지 이 문제부터 제기되어야 합니다. 여성은 일단 순결을 잃게 되면 그만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강압자에게 순응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약점을 악용하여 어떤 목적을 성취한다는 것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비록 여성이지만 인간으로서의 의식이

있다면 이처럼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 수치고 체면이고 다 접어두고 겉으로 터뜨려 잘잘못을 가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권이 제 위치를 찾을 수 있지, 무조건 참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김 부총재님?

김영자: 동감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 지경까지 다달은 것은 무척 부끄럽고 걱정스런 노릇입니다. 박 부총재님의 말씀처럼 여성에게 순결을 너무 강요하기 때문에 이처럼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성교육에 큰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원채 유교 풍습에 길들여져 있어 짧은 시일에 어루어지긴 어렵지만 지금부터라도 남자나 여자나 동등한 위치에서 성교육이 실시된다면 머잖은 그런 문제는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박영숙: 심지어 여성문제라면 남성들이 아예 자신들과는 영 무관한 것인양 방관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를 자기 딸의 문제, 자기 손녀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무관심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성의 문제는 곧 남성의 문제나 마찬가지잖아요.

김영자: 폭력은 힘이 지배하는 문화

에서 발생한다던데 과거의 역사를 살펴봐도 모권중심사회에서는 전쟁과 같이 큰 사건들이 없었는데 부권중심사회로 바뀌면서 힘과 힘의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지요. 그렇다고 친다면 폭력 문제의 책임은 결국 남자에게로 돌아가게 되나요?(함께 웃음)

박영숙: 폭력이라고 해서 물리적인 폭력만이 아니라 상식에서 벗어나는 언어 폭력도 있고 넘어가야 할 문제예요. 제가 재야에 있을 때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경찰에 끌려가 보기도 하고 노동자 문제에 뛰어들어 기업주들과 교섭을 벌이기도 했는데 그때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게 언어 폭력이었어요. 사소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주는지, 또 그 자신 얼마나 비인간적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박영숙: 김 부총재님은 독신이지요?

김영자: 그래요. 혼자 살고 있어요.
박영숙: 그럼 사회활동을 하는데 큰 제약이나 불편은 없었겠군요. 결혼하여 가정을 가진 여성이 사회활동을 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는 주로 여성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만 해왔기 때문에 형평을 이루는데 큰 애로는 없었는데 이번에 정계에 나서 책임있는 자리에 서고보니 역시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김영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직장생활을 할 경우 집안일도 당연히 나누어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자가 직장을 가지지 않았을 경우, 남편이 생계를 맡는 대신 가정내 문제는 아내가 져야 하지요.

박영숙: 여성이 진정 사회활동에 전념하려면 가정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정가진 사람도 직장에서는 조직체의 한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당위론에

“
**소위 정조라는 굴레를
쓰고 있는 여성들이
공권력에 의한 폭력,
직장폭력, 가정내폭력
등으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러한 비인간적인 작태는
민주사회에서 반드시
추방되어야 합니다.**
”



“
**사랑을 위주로 형편에
맞춰 자연스럽게 서로
협조해야 합니다.
바람직한 여성상, 바람직한
남성상이 아니라 이 둘을
합친 바람직한 인간상이
중요한 것이지요.**
”

는 수긍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네 직장은 24시간 풀가동해도 모자랄 정도로 일들이 산적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한가한 소리한다고 나무라겠지만 가장 모범적인 가정이 영위되기 위해, 곧 남편이나 아내가 제구실을 다할 수 있기 위해서는 노동시간이 여유있게 조정,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노동구조 속에서는 결코 두가지를 만족스럽게 병행할 수가 없어요. 아내가 직장을 가질 경우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가사일을 나눠하자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김영자: 그렇다고 해서 의식적으로 이렇게 역할 구분하자고 상대방에게 요구해서는 물론 안되는 일이지요. 사랑을 위주로 형편에 맞춰 자연스럽게 서로 협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바람직한 여성상, 바람직한 남성상 보다 이 둘을 합친 바람직한 인간상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자와 여자를 굳이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박영숙: 여하튼 여성문제는 아직까지 많은 힘을 소유하고 있는 남자들이 많이 양보해야지만, 우리 여성들도 남자보다 열등하다, 여자니까 못한다 따위의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하루빨리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외형상 적극적이고 강한 어조의 박영숙 부총재, 이와 대조적으로 차분하고 여유 있는 김영자 부총재. 그러나 의견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하나같이 일치했다. 그건 아마 둘 모두 여성이라는 공통점 때문일 것이라 여겨졌다.

대담 후 국회의원사당 앞에서 시원하게 뿜어대는 분수대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는 의원회관으로 걸어가려는 박 부총재를 김 부총재가 반강제로 자기 차에 태우고는 함께 떠났다. ♥